

중소벤처기업 유럽 진출 첫발

전주대 LINC+사업단, 글로벌산학협력거점센터 '헤치런던' 설치

전주대 LINC+사업단(중추 단장)은 지난 29일 영국 런던 현지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런던지회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인 '헤치런던(HATCH LONDON)' 현판식을 가졌다.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한인 무역상 조직으로 결성되어 현재는 전 세계 74개국에 147개 지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재외 한인 경제인 조직이다.

교육부 지원의 전주대 LINC+사업단은 런던지회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사)세계한인무역협회의 대륙별 지회로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진출과 전북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글



전주대 LINC+사업단이 지난 29일 영국 런던 현지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런던지회와 글로벌 산학협력 협약을 갖고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인 '헤치런던(HATCH LONDON)' 현판식을 가졌다.

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런던지회와의 협약식에서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부다페스트, 이스탄불, 스톡홀름, 비슈케크 등의 유럽 지역과 CIS 지역의 OKTA 지회장을 10월 중에 전주로 초청하여 전북중소벤처협회(이인호 회장)와 공동으로 전북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간담회와 상품설명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에게 K-Culture 기반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유럽지회를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노력은 전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GTEP사업단, 기업 수출 확대 힘 보탠다

하이솔 등 4개 지역 기업과 수출 지원 협약 학생들은 기업 도우며 무역 실무 전반 체득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 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 교수·이하 GTEP 사업단)이 수출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최근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주)하이솔(대표이사 박이경)을 비롯해 (주)네나(대표이사 배명수), 미네랄바이오택(대표 김승기)과 대전 소재 중소기업인 초록무지개(대표 김도규) 등과 수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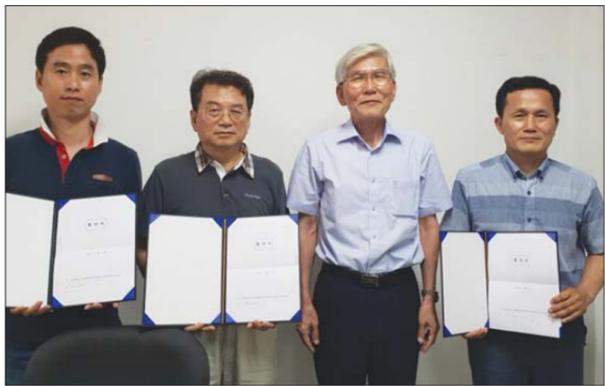
이 기업들은 유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그동안 해외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왔으나, 무역 전담 인력이 없어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 GTEP 사업단의 우수 학생들

을 지원을 받기로 한 것. 전북대 학생들 역시 기업들을 도우며 무역 실무 전반을 체득하는 등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사업단은 향후 이들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상담지원은 물론 평상시 해외 바이어 발굴, 통·번역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이전에는 사업단 학생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윤충원 명예교수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함께 수요조사도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윤충원 명예교수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도내 중소기업들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 교수·이하 GTEP 사업단)이 수출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한 열정이 넘치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 오늘 우림중학교서

도교육청, 수험생들에게 면접 실전 경험 제공 합격률 높여 도내 고3학생 400여명·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등도 참석

전북도교육청은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면접의 실전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제7회 대입 수시 모의면접캠프'를 31일 오전 10시 전주 우림중학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모의 면접캠프는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접수한 고3학년 4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도내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등 130여명도 참석하여 모의면접에 지원한 고3 학생들에게 실전 면접을 실시

한다.

참가학생들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면접에 대응하는 태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서류 확인 등을 숙지하게 되며, 3개 그룹을 나눠 15분 간 개인별 실전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대학 입학사정관과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이 면접하는 실전 면접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통해 지원동기, 학과 선택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다.

아울러 면접 후,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별 준비 및 보완할 점들을 설명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준비와 자신감을 갖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전북교육청은 수시모집을 대비하여 8월 18일에 '수시지원전략 설명회'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수시 대면상담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도교육청 7층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서 진행한다.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하계 방학 중 교내에 잔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분노조절·스트레스' 관리한다

호원대, 방학 중 잔류학생 대상 특별프로그램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하계 방학 중 교내에 잔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에 참여한 163명 중 92명이 30일에 진행된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참여 대상자들은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에서 최근 경험한 부정적 정서에 있어 '분노'에 대한 불평감을 호소했다. 또한 참여하고 싶은 집단 프로그램 주제 1순위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특별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실시했다.

7월 30일에 진행된 특별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하운동부 선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참여 이전에 비하여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방학 중 학교 내 잔류학생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와 요구조사 실시 후 진행된 프로그램이라서 더 의미가 있으며, 통계방학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방학 중 교내에 잔류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대-예초기닷컴, '기증·연구 협약'

하중이 50% 경감되는 스피루스 제품 개발해 기증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군산대학교 사회의실에서 예초기닷컴과 기증 및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이덕진 인공지능자율시스템센터장, 예초기닷컴 황석진 대표, 유디텔(주) 이재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예초기닷컴은 군산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무게를 50% 이상 경감하는 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하중이 경감되는 스피루스 예초기와 분무기 각 1대를 군산대학교에 기증했다.

기증된 예초기와 분무기는 군산대학교 인공지능자율시스템센터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무게감소 장치 및 시스템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개발한 예초기 무게감소 장치 및 시스템 제품(스피루스)이다.

예초기닷컴은 73년 역사의 농기계 회사인 북성공업과 무게감소 장치 및 시스템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예초기 및 분무기의 하중이 50% 절감되는 스피루스 제품을 개발해왔고,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는 데 공헌한 군산대학교에 이를 기증한 것이다.

예초기닷컴은 산학 및 자문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향후 블로워(blower)와 송풍기에도 적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대학교와 예초기닷컴은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유망제품 개발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대를 위한 열정이 넘치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